

군산 경제 위기 극복 '총력'

전북도, 새만금산단 임대용지 추가 매입·공급 투자 촉진·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 기대

전북도가 새만금산업단지의 투자유치 촉진과 함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인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산단 내 장기임대용지를 추가 매입해 공급한다.

도는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새만금산단에 최장 100년간 입주 가능한 49.5만㎡(15만평)의 장기임대용지를 매입·공급한 후, 9월중에 16.5만㎡(5만평)를 추가 매입하여 총 66만㎡(20만평)를 확보하게 되어 임대용지 입주 희망기업에게 공급한다.

이번에 추가 매입하는 임대용지 16.5만㎡는 2019년 본예산으로 확보한 33만㎡ 중 최후에 기재부에서 수시 배정된 국비 136억원과 지방비 34억원을 더해 총 170억원으로 전라북도가 국가(새만금개발청), 군산시의

함께 새만금산단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매입하는 것이다.

새만금산단 임대용지는 새만금사업법의 개정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국내기업에게도 외국기업과 같이 저렴한 임대료(공시지가의 1%, 약 1300원/㎡)가 적용되고, 최장 100년간 입주가 가능하여 최근 많은 국내기업들의 관심과 투자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확대·공급은 국내·외 유망기업의 새만금산단 입주 촉진과 함께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지난해 장기임대용지가 공급된 이후 기업들의 투자협약 체결 건수와 새만금산단 입주 희망기업 수

요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후 투자협약 총 23건 중 지난 8월말 현재까지 임대용지 투자협약 체결건수는 21건으로 면적 159만㎡(48만평), 투자액 1조 195억원 규모이다.

투자협약 기업중 네모이엔지와 레나인타내셔널 등 2개 기업은 이미 공장건축을 착공했고, 8개 기업은 입주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착공을 준비중에 있다.

이송희 도 새만금사업지원단장은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는 새만금에 입주하려는 기업들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투자협약 기업의 조속한 입주를 독려하고, 이미 투자협약을 체결한 면적이 확보면적을 초과한 상태로 임대용지 조성 추가 국가예산 확보와 새만금산단 투자유치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시대 개막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시대 시범 기념식에서 종이증권을 세절기에 넣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네번째부터),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조국 법무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병래(오른쪽 두번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농촌관광 활성화 위한 지역인재 키운다

전북도, 지역리더 육성에 '심혈'

전북도가 도정 핵심정책인 '전북형 농촌관광'을 선도해 나갈 지역인재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전북형 농촌관광을 선도하는 도내 농촌체험휴양마을 위원장 및 사무장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교육을 10월까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3회에 걸쳐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도내 130개 농촌체험휴양마을 위원장과 사무장의 실무능력 강화 및 농촌관광 지역 리더로서 소양 교육을 병행하게 된다.

교육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눠 운영되며, 지난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김제 벽골제마

에서 1차 교육을 완료했다.

2차 교육은 17일부터 19일까지 진안 황금마을에서, 3차 교육은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부안 청호수마을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농촌관광의 최근 트렌드, 마을사업 갈등해소를 위한 이해과정, 안전관리·위생관리·소방관리 등 필수 실무교육으로 이루어지며, 대학교수 및 농촌관광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스타강사를 섭외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그간, 전북도는 사람찾는 농촌, 돈버는 농촌관광을 실현하기 위해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및 보험가입 지원, 지역단위 농촌관광 시스템 구축 등 다양

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18년 12월말 기준 농촌관광을 위해 도내 130여개에 달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948천명이며, 숙박과 음식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 매출액은 95억원이다.

또한, 지난날 말 기준으로는 방문객 수 57만6000명, 매출액 6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9% 달성율을 기록하며 꾸준한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최재용 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그 동안 전라북도는 특화된 농촌관광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설 지원과 지역인재 양성에 집중 투자했다"며, "이제는 '전북형 농촌관광'이 지역주민에게 소득과 농촌활력으로 되돌려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주거환경 개선 통한 주거복지 실현 박차

전북도, 11월말까지 농촌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전북도는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2019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720억원의 주택개량용자금을 확보해 1281동의 주택개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7월말까지 신청 및 접수를 받은 결과 1151동을 선정하고, 나머지 130동에 대해 11월말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추가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주택개량자금 지원대상지는 농어촌 지역에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 및 농

촌지역 거주 무주택 세대주,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귀농·귀촌자도 포함된다.

신축의 경우 건축 소요비용 이내에서 최대 2억원, 중축·리모델링의 경우 1억원을 연 2%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융자금을 지원받아 건립할 수 있는 주택규모는 연면적 합계 150㎡ 이내이며, 주거전용면적 150㎡까지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무주택자가 토지를 매입(660㎡이하)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매입비에 대하여 최대 7천만 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하며, 슬레이트 주택 보유자 사업 신청 시 주택

개량사업자 우선 선정 및 철거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에서는 1976년부터 작년까지 1조4043억원을 투입하여 7만 9463동의 농어촌 주택개량을 완료했으며, 올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선정 완료 이후에도 사업포기 불발 발생 시 대체자 선정 등 사업진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조기에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용민 도 건설교통국장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 향상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하고 정주욕을 고취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전북 농어민들과 전북으로 이주계획이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군산시, 찾아가는 새만금아카데미 운영

평생교육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군산시가 시민들의 미래사회 문화시민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연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 중 다양한 연령층에 참여할 수 있는 찾아가는 군산새만금아카데미는 자녀교육, 재테크, 역사, 자기계발, 미용 등 다양한 분야의 유명강사를 초빙하여 수강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오는 18일 유인경 작가의 '매력적인 사람들의 공통점'이란 주제의 강연으로 군산새만금아카

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MBN 속풀이쇼 동치미 패널, 생방송 오늘아침 패널 등 다수 방송 출연과 활발한 저술 활동으로 대중들에게 친숙한 유인경 기사는 재치하든 신문사 최초로 정년퇴직한 여성기자로 알려져 있다.

이번 유인경 작가의 강연에서는 27년간의 기자생활을 통해 알게 된 소통과 공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것이 사회에서 매력적인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태도가 된다는 강연을 들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인관계는 언제나 쉽지 않은 숙제 중 하나"라며 "기자 생활과 방송활동 중 만난 각계각층의 매력적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고민하고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강의는 오는 25일 저녁 7시, 군산시 평생학습관(다목적실)에서 홍수남 부천대 뷰티케어과 조교수의 '성공 퍼스널 이미지 메이킹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교육지원과(063-454-2600)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북을 빛낼 우수한 셰프 찾습니다"

전북음식문화대전 요리경연대회 참가자 내달 15일까지 모집

전북도는 '맛의 고장 전북'을 알리고 우리 지역 향토음식을 널리 홍보하고자 10월 13일부터 11월 4일까지 제14회 전북음식문화대전을 연다.

2005년부터 개최해 올해 14회째를 맞은 전북음식문화대전은 전북의 우수한 향토음식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요리경연대회, 쿠킹클래스, 14개 시군별 향토음식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제17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와 연계해 참가객에게 풍부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전북도는 본 행사에 앞서 제14회 전북음식문화대전 요리경연대회 참가팀(55팀)을 오는 10월 15일까지 모집한다.

경연은 향토음식과 창작음식(일반, 학생)부문으로 나누어 운영하며, 향토음식은 외식업 종사자, 창작음식은 고등학생 이상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경우 참가신청서와 표준제시표를 주관기관인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에 이메일(miner99@jf.re.kr)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 전북도생물산업진흥원 및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에게는 상장과 향토음식부문 수상업소에는 '수상인증명서'가 수여될 예정이다.

양해중 도 건강안전과장은 "전북의 우수한 셰프와 음식이 발굴되어 전북 음식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이번 대회에 많은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